

우리는 답이 없고, 길이 없고, 빛이 없는 세상에 그것을 전달해 줄 영적 리더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. 본문 13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, 또 그 말씀을 하셨다(“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”) 그 영적 리더로 부름 받은 자가 가야 할 절대 여정도 준비해놓으셨다(남은 자, 순례자, 정복자의 여정) 이번 주는 그 영적 리더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(콘텐츠)이다. 리더에게 절대 중요한 것이다. 리더의 타이틀(정체성)도 있고, 미션도 있는데, 내용이 없으면 문제다.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? 주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불러 3년간 훈련시킨 내용이다. 영적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하고, 필연적이고, 절대적인 것이다.

1.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?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(14절).

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시면서 그 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, 체험하고,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신 것이다.

1) 성경에 리더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릴 때 모든 문제가 끝나고, 모든 증거가 온 것이다.

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(창39:3, 5),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가 이것을 누렸고(출3:12),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(시23:4, 삼하5:10) 한 시대의 영적 리더로 선 것이다.

2) 이 “함께”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냐?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이다.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?

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 것이다. 이것을 영적 생명이라고 한다.

하나님을 알고, 느끼고,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이다. 창조 때 가졌던 생명인데, 잃어버렸던 것이다(엡2:1)

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이 생명이다(요3:5, 요5:24, 요14:6, 요10:10)

모든 응답과 축복과 행복이 이 생명에서 시작된다. 그 분이 나와 우리와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것이다.

②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이 생명이 없다면 죽은 자로 다닌 것이다(종교인)

세상의 어느 종교도 생명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. 창조자이신 그 분만 가능한 것이고, 그 분이 아들의 모습으로

오신 것이다.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. 생명이다. 영적 생명, 완전한 생명,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.

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. 열매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든지, 병들었든지 둘 중의 하나다.

3) 교회는 계속 이 생명 운동을 해야 한다. 윤리운동, 구제운동, 다 좋은데 생명 운동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다.

성도가 이 영적 생명을 누리고,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이다.

생명을 얻는 길인 그리스도를 말해주고, 영접시키면 된다(요계3:20, 요1:12).

2.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전도가 두 번째 내용이다(14절하).

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인생 내용 속에 이것이 있어야 한다.

1) 전도가 무엇인가?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.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누림이다.

① 내가 아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다. 아는 길을 말해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(구원의 길). 쉽고 기본도 좋다.

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.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. 이 맛을 봐야 한다.

② 특히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(행13:48).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그것이 시스템이 된다.

마가 다락방의 전도가 이것이다. 되어지는 전도, 시스템 전도였다. 그래서 다섯 시스템이 중요하다.

2) 이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다.

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이다(요3:16, 딤후2:4).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이다(마24:14)

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평신도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으셨다고 했다.

핍박을 당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영원한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백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(막10:29-30).

3)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게 만들어보라. 그때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.

① 학업도, 직장 생활도,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셔야 할 절대 이유다.

사업도 제대로 하려면 나와 복음이 통하고, 사명이 통하는 사람부터 키우고 시작해야 한다(제자).

② 목회도(특히 다민족사역) 마찬가지로. 교회 안에 이것이 통하는 제자들이 자리 잡으면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.

롬16장의 전도자 바울과 모든 교회의 보호자, 동역자, 식주인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 전도로 통한 것이다.

3.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할 세 번째 내용은 영적 전쟁이다(15절)

하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요(딤후2:3), 영적 사령관이라고(사55:4) 하시는 이유가 뭐냐?

성도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가진 자이다(미국이 강대국인 이유)

1) 영적 전쟁이 왜 필요한가? 영적 생명을 잃게 하고,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.

첫 인생 아담과 하와부터 속았다. 그 고통과 저주를 모든 인생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(롬5:12, 롬5:19)

2)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것이다.

① 그 분이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직접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.

“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이나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”(요10:10)

“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.

② 그 권세를 12제자들에게 주시고,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(눅10:19)

그 권세를 받고 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.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(마12:28)

어딜 가도 흑암부터 결박해라(마12:29). 24기도 속에서 누리고(막9:29), 사역할 때 그 축복을 누리라(벧전2:9)

보좌의 권세(천군과 천사를 동원함), 시공간 초월의 능력, 빛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도 그것이다.

3)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없거나 희미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.

① 늘 두려움, 불평, 원망, 갈등만 계속된다. 개인, 가정, 사업, 교회, 국가도 마찬가지다.

어둠을 만드는 자들이다. 정사와 권세를 쥐고 악한 일을 만드는 자들이다(엡6:12).

② 27 나라를 살리는 참된 치유와 썩음을 세우는 축복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(막16:15-20).

언어가 다르고, 문화가 다르고, 문제가 다른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근본 문제는 같다. 영적 문제이다.

그래서 정확히 영적 사실을 보고, 영적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,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면 다 살아난다.

결론-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하신 세가지 내용이 이 시대 영적 리더요,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내용이다. 하나님의 것으로 내용을 만들고, 그 내용으로 풍성한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한다.

